

본부장이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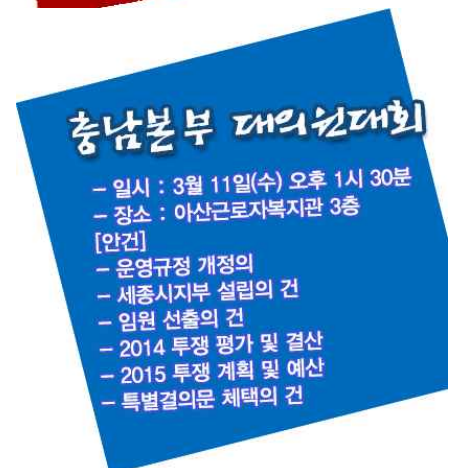
11일 대의원대회, 19일 투쟁선포식에서 우리의 힘을 확인하자

동지들! 어느덧 3월입니다. 봄이 오는가 했는데, 아직 겨울이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듯 합니다.

암흑 같았던 이명박 5년과 박근혜 2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명박은 청와대를 개입시켜 노조 말살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노갈등 유발, 쌍용차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테러범에게나 사용하는 테이저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잠 좀 자자고 요구하는 유성지회에 대해 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봉 8천~9천을 받는 귀족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라고 거짓을 선동했습니다.

박근혜는 또 어떻습니까? 국정원을 동원한 대통령 당선, 민주노총 사무실 폭력 침탈, 세월호 침몰, 통합진보당을 해산 등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의 목줄을 끊기 위해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싸워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고 분명합니다. 4월 선제 총파업과 2015년 투쟁의 시작과 끝은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3월 1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힘있게 투쟁계획을 수립합시다. 3월 19일 충남본부 투쟁 선포식을 통해서 충남지역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확인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처럼 일부 산별의 주도가 아니라 충남본부 소속 전체 산별과 사업장이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11일 대의원대회와 19일 투쟁선포식에서 우리의 힘을 확인합시다



천막농성 39일째! 충남 고교평준화 투쟁 3월 18~19일까지 결론 날 듯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월 상임위까지 통과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2016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던 천안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졌다. 지난 10년간 고교평준화 운동을 벌여온 충남의 학부모, 교사, 교육운동 단체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 번 2015년 첫 의회에서 안전이 재상정 될 것을 기대하며 지역의 여론을 모아나갔다. 그런데 도의회는 또다시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번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도의회를 무시하는 충남도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후안무치한 태도였다. 그렇게 2016년 고교평준화 실시는 물 건너가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주도했던 주체들은 실망하거나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1월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싸움을 시작했다. 1월 31일엔 도의회 앞 주차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김지철 교육감의 고뇌어린 사과가 있었고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헌신적 노력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3월 도의회 회기를 앞둔 현재 그래도 다시 한 번 조례개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2016년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이번 회기에서 조차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평준화 실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지난 10년을 끌어온 싸움의 한 꼭지가 3월 18~19일 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고교평준화 충남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뿐 다양한 산별 조직들과 함께 아니라 이번 싸움에 지속적으로 함께해 왔다. 농성장 사수도 그 하나다.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

서태안위원회, 노동자-서민 살리기 대시민 선전전 돌입



연금개약 저지-공적연금 강화 △서민주머니 털어 부자 곳간 채워주는 박근혜 퇴진의 내용을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당진시위원회도 3월 둘째주부터 시민들을 만나 민주노총 총파업의 정당성을 알려낼 계획이다.

서태안위원회가 4.24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승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달 회의를 통해 서태안 지역 노조를 두 개조로 나누어 3월 첫째주부터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서산터미널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공무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서산센터 출근 선전전 진행 중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부권(천안,아산,서산,홍성분회) 동지들이 또다시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천안,서산센터 동지들이 출근선전전을 시작했다. 최근 천안센터는 조합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사위에 회부하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느닷없이 자재 조사를 해서 꼬투리를 잡는 등 조합원에 대한 표적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산센터 역시 센터 사장에 의한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근선전전은 매일 08:00에 20~30여분간 진행한다. 출근길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며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불법파견 현행법, 상습범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구속 촉구 기자회견



충남본부는 3월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현행법, 상습범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법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오지환 동지는 “이번 판결을 우리 7명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전체 자동차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이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회는 3월 9일 오전 10시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성자본, 또다시 조합원 해고 1명, 정직 2명

유성자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발악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조합원 1명을 해고하고 2명에 대해서는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때렸다. 이에 대해 지회는 유시영 회장, 이기봉 공장장, 김주표 노무이사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소,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년 여의 기간동안 유성자본의 의도대로 지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직력을 더욱더 든든하게 키워냈다. 게다가 작년 말 대전고법은 유시영 사장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지회의 제정신청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유시영 사장은 재판까지 받고 있다. 유성자본은 그동안 공들였던 수고와 돈이 아까워서인지, 자존심때문인지, 아니면 지회를 꺾 수 있다는 희망때문인지 노조탄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사측임을 이제라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기자회견 후 농성 돌입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와 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로 구성된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이하 연대회의) 동지들이 지난 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2012년 1월부터 만 3년 동안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계속되는 말바꾸기로 교섭 타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교육청과 마지막 교섭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진전을 없어 결국 교육청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 △정액급식비 등 수당 쟁취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상여금 및 성과상여금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조합원 총투표 공고

민주노총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의거하여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조합원 총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총투표 기간 : 2015년 3월 21일(토)~2015년 4월 8일(수) 중
각 가맹산하조직이 정한 기간
2. 투 표 장 소 : 각 가맹산하조직이 지정한 곳
3. 개 표 일 시 : 2015년 4월 8일(수) 이전까지
각 가맹산하조직이 정한 기간
4. 개 표 장 소 : 민주노총 투쟁본부 결정에 따른 개표 장소

2015년 3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 상 군



총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충남권 현장순회 일정

1팀 현장순회 일정

▶ 1차 순회

06:00~10:00	현대제철지회, 비지회, 조업정비지회	공동출투/식사/간담회
10:20~11:20	현대하이스코지회	간담회
11:40~13:00	한국내화지회	간담회/중식선전전
13:30~14:30	화물연대 충남지부	간담회
15:00~16:30	공무원노조 당진시지부	현장순회/간담회
18:00~19:00	축협, 엘지유플, 동희오토, 스카이, 전교조 등	대시민선전전
19:00~20:00	식당	식사/간담회
20:30~21:30	충남공공노조 교섭위원 워크숍	교육/간담회

▶ 2차 순회

06:00~10:00	플랜트 충남지부	출투/식사/간담회
10:30~11:30	다이모스지회	현장순회/간담회
12:00~13:20	전교조(공무원과 함께)	도시락간담회
14:00~15:00	보령화력지부, 보령화력환경지부	간담회
15:30~16:40	한국지엠보령지회	현장순회/간담회
17:40~18:00	공무원노조 보령시지부	현장순회/간담회
18:30~	건설기계, 전교조, 축협, 지역노조	석식/간담회

2팀 현장순회 일정

▶ 1차 순회

08:00~09:10	천안문화예술지부	결의대회(공공주관)
09:30~10:00	한국GKN지부	현장순회
10:10~10:30	코리아웨코스타지부	현장순회
11:00~11:40	티센크루프E/L지회	현장순회
12:00~13:00	대한칼소닉지회	중식선전전/중식/간담회
13:30~14:30	대원강업성환지회	현장순회
15:30~16:00	나스텍지회	현장순회
16:30~17:30	위니아지회	현장순회
17:30~18:00	갑을오토택지회	현장순회

▶ 2차 순회

07:30~09:00	유성지회	출근선전전/조식/현장순회
09:20~10:20	세정지회	현장순회
10:40~11:20	명신지회	현장순회
12:00~12:30	한국분말야금지회	현장순회/중식
13:20~14:20	현대차아산위원회	간담회
15:00~16:0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대회	집회
16:40~17:30	대림프라코지회	현장순회

주요 사업 일정



날짜	시간	장소	내 용
9일(월)	10:00	현대차 정문	대법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
10일(화)	12:00	본부회의실	철도노조 천안권역 신입 집행부 간담회
	14:00	아산비정센터	총파업 승리 충남 실천단 교육
11일(수)	13:30	아산근로자복지관	충남본부 정기 대의원대회
12일(목)	08:00	천안시청	충남문화예술지부 해고자 원직복직 결의대회
	종일	충남전역	총파업 조직화 민주노총 충남권 현장순회
13일(금)	종일	충남전역	총파업 조직화 민주노총 충남권 현장순회
14일(토)	15:00	평택 쌍차 앞	쌍용차 해고자 원직복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314 희망행동